+

수소 1g으로 석유 8t 맞먹는 친환경 '꿈의 에너지' 생산

인공태양연구시설이란?

민·관 핵융합 기술 상용화 연구 기반 가열·전류구동 시험 등 5대 핵심 시설 200개 기업・1만여개 일자리 창출 전망

전남도와 나주시가 전북 군산시·경북 경주시 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'인공태양(핵융합) 연구시설'은 정부 가 국가 전략기술인 핵융합에너지 가속화와 기 술 선도를 위해 구축하는 핵심 연구 기반 시설이

'무한 청정에너지'로 평가받는 핵융합에너지 는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 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 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.

연료인 수소 1g으로 석유 &에 맞먹는 에너지 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 지 않고 폭발 위험도 적어 탄소중립, 에너지 안 보, 미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로 꼽힌다.

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'전남 AI·에 너지 수도' 도약을 위한 핵심 퍼즐로 보고 유치 에 공을 들여왔다.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 나주에 들어서면 200개 이상의 관련 기업 유 치와 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하고 있다.

미국·영국·중국 등 주요 국가가 앞다퉈 핵융 합에너지 개발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한국도 핵 융합에너지 상용화 기술과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추진 중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 한 '핵융합에너지 실현가속화 전략'을 통해 2035 년까지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단계별 기술 개발 이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.

핵융합에너지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시험·검증이 필수적 이다.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·실증 전초기지다.

과기부는 지난 10월15일 '핵융합시설 핵심기

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'(인공태양 연 구시설) 부지 유치 공모를 공고했다. 민·관 협력 을 통한 핵융합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과 첨단 연 구·산업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다.

한국형 혁신형 핵융합로 구현 7대 핵심기술 개발 3천500억원,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5대 핵 심 연구 실증 기반 구축 8천500억원 등 2027년부 터 2036년까지 총 1조2천억원(추정액)의 사업비 가 투입될 전망이다.

한국형 혁신형 핵융합로 구현 7대 핵심 기술 은 ▲노심 플라즈마 ▲디버터 ▲가열·전류구동 ▲초전도 자석 ▲증식블랑켓 ▲핵융합 소재 ▲ 연료주기 등이 포함된다.

5대 핵심 연구 실증 기반은 ▲가상 핵융합 기 반 첨단 IT 인프라 ▲가열·전류구동 통합 시험

시설 ▲초전도 자석 시험·평가시설 ▲핵융합 중 성자 조사와 안전성 시험시설 ▲핵융합 연료주 기 공정 시험시설 등이다.

과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한 성과 목표를 핵심 기술 상용화 수준 확보, 핵심기술 검증 데이터・ 표준 확보, 인프라 활용 확산과 공동활용 체계 확립으로 설정했다.

선제적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·실증, AI·디지 털 기술 적용 핵심기술 개발 기간 단축, 연구·산 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상용화 선도, 전주기 관 점의 운영・유지보수 최적화 전략 수립 등의 순 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과기부는 이번 부지 선정을 기반으로 오는 12월 제출 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. /양시원기자



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에서 열린 '함평 월천-석창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착공식'에 참석, 주요 내빈들과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

〈전남도 제공〉

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건설 속도낸다

월천-석창 지방도 확포장 공사 착공 517억 투입 3.8km 구간 2031년 완공 '함평 미래 발전 비전' 실현 첫걸음

전남도가 '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' 건설 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전남도는 24일 함평 손불면 일원에서 '월천-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' 착공식을 개최했

수, 모정환 전남도의원,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 다.

장,지역주민등300여명이참석해숙원사업실 현을 축하했다.

전남도와 함평군은 2023년 9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대도약을 위한 '함평 미래 지역 발전 비전'을 발표했다.

이번에 착공한 '월천-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'는 함평 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도 로 사업으로 총 3.8㎞ 구간에 517억원이 투입되 며 2031년 완공 목표다.

함평만 해양관광 일주도로는 총 20.5km로 이 가운데 5.1km는 이미 개통돼 사용 중이며 11.6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, 이상익 함평군 때는 함평군에서 공사와 설계를 진행하고 있

이번에 착공한 3.8㎞ 구간이 신규 개설되면 서 해안의 아름다운 갯벌과 환상적인 낙조, 넓게 펼쳐진 함평만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또한 돌머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가 활성 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, 원전 재난 시 중요한 피난도로 역할을 담당 하며 주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.

김영록 지사는 "불편한 생활 여건에서도 묵 묵히 지역을 지켜온 손불면 주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"며 "함평군민 교통 복지 향 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 조했다. /김재정기자

세방그룹, 5억 상당 차량 13대 광주시 기부

지역 사회복지시설 13곳 전달

광주시는 24일 광산구 세방전지 로켓플래닛 에서 세방그룹,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 께 '기부차량 전달식'을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 설에 차량을 지원했다.

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정희 세방전지 대표이사,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 모금회장, 차량 지원기관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.

전달식은 세방그룹이 지난 1월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5억원의 성금을 바탕으로 마련했다.

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 등 13개 기관에 현대 차 '스타리아' 차량 13대를 지원하는데 활용된다.

또 지역복지관 프로그램 운영,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도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.

강기정 시장은 "세방그룹의 따뜻한 나눔이 지 역사회 곳곳에 큰 힘이되고 있다"며 "기부금이꼭 필요한 곳에 전달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광주시도적극뒷받침하겠다"고말했다.

박정희 세방전지 대표이사는 "작은 정성이라 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 다"고밝혔다.

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"이 번 기부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원"이라 며 "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나눔문화가 널 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 /기수희기자

金지사·전남농협 조합장, 농정 발전 방안 논의

김영록 전남지사는 24일 도청 서재필에서 전 남농협 조합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열어 농정 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간담회에는 4선 이상 조합장들이 다수 참석 해 지역별 농업 현안과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전 남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.

김영록 지사는 "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 진 재해와 일부 농산물 가격 급등락 속에서 농 민과 함께 애쓰고 고민하느라 수고 많았다"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이어 김 지사는 "농협은 우리 농정의 핵심 축"이라며 "탁월한 리더십으로 전남 농업의 미

래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전남도와 전남농협은 생산비 절감, 농가 경영 안정,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▲원예작물 해충 포획기 지원 ▲바이오차(토양환경개선제) 지 원 ▲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 ▲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▲농업재해보험사업 ▲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▲농촌 왕진버스 지원 등 총 18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. 올해 투입된 협 력사업비는 2천755억원에 달한다.

전남도는 농협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노 동력 부족 해소, 기후변화 대응 영농 체계 확립,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, 청년 농업인 육성 등 핵심 농정 현안을 함께 해결할 방침이다. /김재정기자



+